

# 나주시 국내 유일 에너지 특화 영재교육원 출범

켄텍 부설 설립 확정...초·중학생 대상 인재 양성 본격화  
올 상반기 중 개원...글로벌 에너지 수도 도약 기반 구축

나주시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부설 에너지영재교육원 설립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미래 에너지와 첨단산업을 이끌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켄텍 부설 에너지영재교육원 설치와 운영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에너지영재교육원은 나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생(4~6학년)과 중학생(1~3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에너지 분야 특화 영재교육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원은 미래 에너지 분야 핵심 인재를 대학

이 직접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우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인재 유출 방지와 소외지역 교육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에너지영재교육원 설립은 나주 시민들의 오랜 요구를 바탕으로 나주시의회와 발의와 나주시의 주도하에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추진됐으며 전라남도교육청 승인과 나주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관계 부처의 협조를 거쳐 올해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나주시는 에너지영재교육원 운영 예산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와 논의 끝에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나주시, 전라남

도교육청, 나주교육지원청은 교육원 설립과 운영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으며 이번 사업은 나주시 교육특구 사업과 나주교육지원청의 나주교육빅뱅 프로젝트와도 연계해 추진된다.

에너지영재교육원은 향후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해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설명회, 공개 시범 수업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학생 선발은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재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교양, 기초, 탐구 과정 등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향후 전라남도 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에너지영재교육원은 나주가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는 데 핵심이 될 인재양성의 출발점”이라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전국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나주시 제공)

## 장성군 ‘10년 담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확보 나섰다

위원 15명 기금 운용위원회 구성  
농가 경영 안정·식량 안보 일조

장성군이 최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자금활용에 나섰다.

운용위원회는 가격안정기금이 투명하게 관리·지급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 김한중 군수 포함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9명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8년 2월 2일까지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지역 내 주요 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도매시장 가격이 정해진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기금으로 지원해 농가 피해를 경감시킨다.

장성군은 지난 2016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일찌감치 기금 운용 준비를 마쳤지만, 이후 기금 조성 과정이 원활치 않아 시행하지 못했다.

군은 이번 운용위원회 구성을 기점으로 다시 한



장성군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했다.

(장성군 제공)

번 기금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행정과 관계기관,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조례 제정 이래 10년 동안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성공적으로 확보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식량 안보 강화에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장흥역~장흥버스터미널 연결 버스 노선 개설

하루 총 8회 열차 도착시간 맞춤운행...이용객 교통 편의 제공



장흥역 전경.

##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을 1차 입주자 모집

27일까지 신청...추가 공급 계획도

화순군이 2026년도 만원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공실인 23개 가구부터 우선 공급, 2월2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이 가능한 전입 예정자다.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만원임대주택 1차분은 3월21일 입주자 추첨을 거쳐 5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만원임대주택은 화순군이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 1만 원만 받고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 여건을 향상하기 위한 주거 복지 정책이다.

특히 마트·병원·관공서·학교 등 생활 편의시설

과 교통인프라가 잘 갖춰진 입지여서 입주 청년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실제 화순 만원임대주택에는 지난 3년간 총 300호 모집에 청년·신혼부부 2605명이 지원, 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는 청년 153가구, 신혼부부 124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은 앞으로 부영주택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규 1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함평군, 전남형 새뜰하우스 지원 참여자 모집

빈집 리모델링해 임대주택 활용

함평군이 지역 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귀농·귀촌인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전남형 새뜰하우스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전남형 새뜰하우스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던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사업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귀농·귀촌인을 위한 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건축물 등기 및 대장에 등재된 농어촌 지역의 빈집 소유자로, 소유자가 빈집을 4~5년간

합평군에 무상으로 제공하면 군이 최대 7000만원을 투입해 주택을 리모델링한다. 정비된 주택은 일정 기간 귀농·귀촌인에게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함평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함양=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강진군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 11억 지원

1103농가 1158ha 설 이전 집행

강진군이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 예비비를 투입해 총 11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명절 이전 집행할 계획이다.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 조사와 지원대상 확정 절차를 마무리한 결과 벼 깨씨무늬병 피해는 1103농가 1158ha로 집계됐다.

이는 강진군 전체 벼 재배면적 8300ha 대비 약 13.9%에 해당하는 규모로 피해 범위와 정도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벼 깨씨무늬병은 벼 잎과 이삭에 병반을 형성해

광합성을 저해하고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동시에 초래하는 병해다.

특히 고온다습한 기후 조건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 지난해 이상기후 영향으로 병발생이 집중되면서 농업 현장에 큰 어려움을 안겼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벼 깨씨무늬병 피해는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 수준의 병해였다”라며 “군이 책임지고 긴급 예비비를 투입한 것은 피해 농민의 부담을 덜고 농업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나주시, 청년 행정인턴제 첫 도입...20명 공모

전공·역량 맞춤형 일자리 제공

나주시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행정 실무 경험과 취업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청년 행정인턴제를 도입하고 공개 모집에 나섰다.

나주시는 장기간 경기 불황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경험과 경력 형성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 행정인턴제를 신설하고 오는 24일까지 총 20명을 모집한다.

청년 행정인턴제는 기존의 단기간 직무 체험 방식에서 벗어나 6개월간 행정 현장에서 전문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 근무 형태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제 행정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능력을 향상해 향후 취업과 사회 진출에 활용할 수 있는 경력을 쌓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행정인턴을 대상으로 전공과 자격증, 개인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청 각 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며 청년들이 희망하는 분야의 고용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선발된 행정인턴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주 40시간 근무하게 되며 월 230여만 원 수준의 임금과 4대 보험이 보장된다.

모집 인원은 총 20명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누리집 ‘열린시청·채용·채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061-339-8313)으로 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청년 행정인턴제는 지역 청년들이 행정 현장에서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쌓고 사회 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담양군, 복지 위기 가구 발굴 민관 손잡았다

한전 지점·우체국과 업무협약

담양군이 복지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민간기관과 손을 잡았다

담양군은 최근 복지 위기 가구의 조기 발굴과 지원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전MCS 담양지점(지점장 김수철), 담양우체국(국장 김영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건〉

이번 협약은 기존의 대량 정보(빅데이터) 중심 발굴 체계를 보완하고,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자주 만나는 전기 검침원과 집배원의 업무 특성을 활용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

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기 징후 신속 신고 ▲위기 상황 교육 및 안내 체계 강화 ▲위기 가구 발굴 협력 모델 개선 등이다.

군은 총 29명(집배원 20명, 전기 검침원 9명)의 인적자원을 활용해 지역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촘촘한 사회 복지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한전MCS 담양지점, 담양우체국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이고 예방적 복지로 행복한 담양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